보성군, 제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개최

조상현 명창의 특별 공연과 판소리 경연·체험이 함께하는 전통 소리 축제

보성군은 대한민국 대표 소리 축제인 '제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보성군이 주최하고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한국 전통 음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를 통해 신진 인재를 발굴하고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 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전통 판소리를 중심으로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국악 명인들의 특별 공연 ▲명창 추모제 등 전통의 멋과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전통 악기 만들기 체험 ▲주막집 판매행사 ▲마술 배우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관람객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판소리 명창 조상현 국창의 특별 공연이 예정돼 있어, 전통 소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뜻깊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축제는 사흘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5월 4일(일)에는 축제의 서막을 여는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예선이 열리며, 판소리와 고수 부문으로 나뉘어, 명창·명고부, 대학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등 다양한 부문의 참가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5일(월)에는 경연대회 본선과 함께 ▲장년(노년)부 경연 ▲명인·명창 고수 열전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축하공연 ▲보성군립국악단 특별공연 등이 이어지며, 시상식도 진행된다.

6일(화)은 보성판소리성지에서 명창 추모제가 열린다. 보성 소리의 맥을 잇는 명창들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 판소리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김철우 군수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소리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남녀노소 모두가 국악을 즐기고 소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연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참가신청서와 증빙자료를 4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문화원(☎ 061)850-5892/852-2629)에 문의하거나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tour/festivity/sopyonj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김운기 기자

봄날 저녁 지리산 천은사에 피어나는 Monk's Dream

4월 26일, 2025 지리산 재즈페스티벌 봄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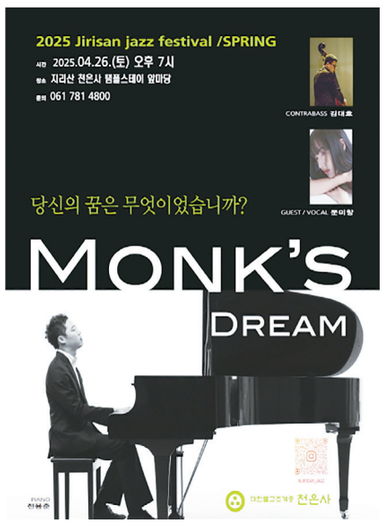
봄날 저녁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천은사에 재즈의 향연이 피어난다.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는 4월 26일 오후 7시 경내 템플스테이 앞마당에서 '2025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봄'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Monk's Dream'. 비밥의 거장, 텔로니어스 몽크(Thelonious Monk)의 대표작에서 영감을 받은 무대로, 'Monk'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스님과 음악가 모두의 수행적 여정을 담았다.

피아니스트 전용준과 콘트라베이시스트 김대호가 함께 무대를 이끌고, 재즈 보컬리스트 문미향이 따뜻한 봄 감성을 더한다. 이들은 각각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해 온 연주자로, 이번 무대를 통해 '꿈꾸는 재즈'의 순간을 관객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전용준은 통영국제음악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서울재즈페스티벌 등에서 주목받은 피아니스트로, 자이언티, 빅뱅, 태양 등 대중음악과도 교류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쌓아왔다. 구조적이면서도 자유로운 그의 연주는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김대호는 절대음감과 감각적인 연주로 국내 재즈씬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베이시스트다. 커트 엘링(Kurt Elling)과의 협연 등 해외 무대 경험도 풍부하다. 보컬리스트 문미향은 '달빛 같은 목소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전통 재즈보컬의 가치를 이어가는 주역이다. 2024년 한국대중음악상에 노미네이트되며 주목을 받았다.



주지 대진 스님은 "천은사의 봄밤,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Monk's Dream'은 참가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라고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061)781-4800

구례/한정호 기자

해동문화예술촌, 봄맞이 신규 전시 개막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어린이 전시 '키치' 주제로 작품 전시

(재)담양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봄을 맞아 해동문화예술촌 기획전시와 어린이 전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기획전시 '해충, 따개비, 이끼 : 스며들고, 달라붙고, 얽히며' 전시는 지난달 29일 개막해 6월 1일까지 해동문화예술촌 아레아 갤러리에서 운영되며, 이한나·정혜정·구기정 작가가 참여해 인간과 비인간, 기술과 생태를 분리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한다.

이한나 작가는 불결한 존재인 해충을 회화와 조각으로 되살려내, 이들이 살아 숨 쉬는 고유한 세계의 일부임을 드러낸다. 정혜정 작가는 따개비의 시선을 빌려 바다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영상 작업 〈히치하이커_프롤로그〉를 선보이며, 구기정 작가는 이끼처럼 미세한 존재들을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기술을 활용해 3D 공간 속에서 재현함으로써 생명과 기술 사이의 복잡한 얽힘을 표현한다.

어린이 체험형 예술전시 '최한나 작가와 함께하는 키치한 세상' 전시 또한 같은 날 개막해 7월 13일까지 해동문화예술촌 소동동에서 진행된다.

키치란 값싼 모조품을 뜻하는 말이지만 작가는 키치에서 영감을 받아 헌 옷, 실, 천과 같은 재료로 캔버스를 채우며 일상 속에서 접했던 물건들을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표현해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한편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4월 26일, 5월 31일, 6월 28일) 오후 2시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작가와 함께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전시연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담양/이종옥 기자

한국민화뮤지엄 2025년 전남 문화예술교육사업 2개 선정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진행

한국민화뮤지엄(관장 오슬기)이 전남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2025년 전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두 개 부문에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사업'으로, 오는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전통문화를 반영한 민화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 민화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민화뮤지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전통 민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민화에 담긴 전통적 의미와 미적 감각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를 마련한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 1명을 채용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및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총 3,38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민화뮤지엄은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자 모집은 4월 중 공고될 예정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한국민화뮤지엄 관계자는 "문화예술교육사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천년고찰 세계유산 순천 선암사에서 그려볼 특별한 봄날

2025년 세계유산 활용사업,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포근한 4월을 맞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특별한 봄날을 선사할 '2025년 세계유산 활용사업'을 천년고찰 선암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세계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세계유산 순천 선암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할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배우며 즐기는 에듀테인먼트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전문 해설사가 아이의 시선으로 선암사에 대해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전문 미술강사와 함께 선암사의 봄날을 직접 그려보는 체험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총 4회(4월 12일, 13일, 19일, 20일) 진행되며, 각 회차별로 20명씩 선착순으로 사전 접수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 어린이(부모 동반 가능)로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특별한 봄날을 기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기념품이 증정되며,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품은 올해 9월 진행될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에서 전시 작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따뜻한 봄날 자라나는 아이들이 천년고찰 선암사에서 우리의 소중한 세계유산을 온전히 느끼고,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 사전접수 등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61-721-6161)로 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